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초등학생을 위한 계몽 활동 실시

- 1 지자체명 연해주 지방
- 2 발표자명 민첸코 쿠세니야,
포자르니이 지역, 르체고르스크 마을
제 4 종합교육학교, 7 학년, 동아리활동 그룹 「라브로빈조니」
- 3 활동명 고행 생활폐기물 분리 (전지, 폐지) , 처리, 재활용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폐기물 취급 주의에 관한 계몽 강의 · 활동
실시
- 4 활동기간 2003 년 9 월~2004 년 7 월
- 5 활동장소 르체고르스크 마을
- 6 활동참가인원 28 명 (11~14 살)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르체고르스크 마을의 고행 생활 폐기물에 의한 오염, 주민의 환경 문제에 관한 지식 부족 등.

8 발표 요지

르체고르스크 마을 주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기물이다. 현재 마을 인구는 30만명이지만 모든 주민들이 「스모그」 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게다가 정기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을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가 가장 단순한 처리방법으로 소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각할 때 나오는 연기가 자연에게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또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의 오염 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흐른다. 쓰레기 처리장에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터리, 전지 등의 수은 등을 포함한 유해 쓰레기도 운반되고 있다.

또 마을 중앙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매년 수톤의 낡은 책이 운반되어 소각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리 그룹 「라브로빈조니」가 2003년부터 르체고르스크 마을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높혀 생활 폐기물로 인한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첫 단계로서는 「가정공장」 이라는 활동을 실시했다. 그 목적은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나오는 폐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주니어 · 에콜리지스트(에코클럽에서 환경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낡은 노트, 잡지, 신문 등으로 골판지를 제조하기 위해 가정 공장을 만들었다. 또 어린이용 프로그램 「카라가라스」 방송을 위해 골판지 제조법과 그 골판지 사용법 등을 간단히 설명한 비디오를 촬영했다. 이 비디오를 카피해서 모든 지역과 학교에 나눠줬다.

제2단계는 「주의! 유해 폐기물!」 이라는 활동이다. 목적은 젊은 사람을 폐기물처리에 관한 자원 봉사 활동에 참가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주민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지도 교관과 학생들에 의해 마을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설문서를 작성해 그 설문서를 부모들과 함께 5학년~11학년 학생들에게로 배부했다. 또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지식 수준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그래프를 이용해 정리했다.

또 주민을 위해 NGO 「페르보트베트」 와 함께 「우유팩은 어떻게 하면 작게 할 수 있는가?(우유팩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어린이용 프로그램 「카라가라스」 방송을 위해서 「주의! 유해 폐기물!」 의 비디오 제작과 아울러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도 작성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 페르보트베트 멤버 20명에 의해 연극도 상연했다.

연극 목적은 아이들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유팩이나 패스트병의 올바른 분리수거와 처리법 등을 알렸으며 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유해 물질에 관한 팸플릿도 작성했다. 기획 내용을 설명 한 게시판(신문) 및 전지의 개수를 기록, 계산하기 위해 특별한 용지를 작성했

다. 또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다!」 라는 선언문을 추가로 기입했다. 3일간에 걸쳐 마을 학교에서 「가장 많은 전지를 수거 하는 학생」이라는 경연대회를 열었다. 학교에 전지 수거장소를 마련해 거기서 멤버들이 전지를 받아 개수를 계산, 기입해, 가장 많이 수거한 학생, 클래스, 학교에 기념품이 전해졌다.

그리고 이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연해주 지방 및 로후스크 지방에 전지 재활용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었다. 수거 된 1086개의 전지는 하바로프스크 지방의 재활용 공장으로 배송되었다.

또 멤버는 지방정부의 지도로 실시된 「우리들은 장래 여기서 산다!」는 홍보 활동에 참가했다. 마을에서는 「쓰레기 몬스타(monster)」와 포스터 등을 사용해 홍보 활동을 하였다. 홍보 슬로건은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합시다!」였다. 이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마을사무소 직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9 활동 성과

- 70 장 (280 명) 의 설문서를 분석했다. 참가자 80%는 마을 생활 폐기물에 의한 오염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폐기물을 분리한다고 대답했다. 결과는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음.

(<http://ecoprim.luchegorsk.ru>.)

- TV 방송 「카라가라스」에서 멤버가 취재한 3 개의 비디오, LTV 「파노라마」에서 1 개의 비디오가 방송되었다. (시청자수 약 6500 명). 지방 신문 「포베다」에서는 「주의! 유해 폐기물!」에 관한 2 개의 기사가 게재되고 (독자수 약 3500 명), 유스 신문 「시포브닉크」에도 게재되었다. 또 지방 라디오국에서도 방송되었다 (약 4000 명).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혀 유해 폐기물로부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 연극 「우유팩이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수 있을까?」를 6 번 상연했다. 상연에 8 개 클래스와 보육원 「테레모크」의 그룹이 참가 했다. 230 명의 아이들이 폐기물,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다.
- 르체고르스크 마을 3 학교에 50 장의 팜플렛을 배부했다. 30 개 클래스(약 750 명)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다. 사전 정보 제공으로 전지 수거 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볼 수 있었다.
- 전지수거 경연대회에는 3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 하여 합계 1086 개의 전지가 수거 되었다. 총중량 25 킬로의 유해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장에 배송되지 않고 아이들 손으로 말미암아 21500 m³의 토양이 오염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다. 포자르스키 지방 주민에 대한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싶다!」라는 선언문에 149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이 활동은 보육원의 아이들을 포함해 약 800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유해 폐기물과 그 감량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 각 가정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최자인 동아리그룹 「로빈조니」의 멤버는 이 활동을 통해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바로프스크 지방 환경 수는 재활용 센터 소장과의 대화는 장래, 연해주 지방을 비롯한 극동 지역 전체에 “수는 배합 제품의 재활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